

숭대극회 제47회 가을 정기공연

작 • 김지하
기획 • 홍석환
연출 • 송근호



금관의 예수

일시 : 1992년 9월 17일(목. 6시)

18일(금. 6시)

19일(토. 1시·5시)

장소 : 숭실대학교 대학극장(제1공학관 3층)

주최 : 숭실대학교 숭대극회



극회장 양현준 (법 90)

연극에 대한 뜨거운 열정, 뜨거운 깊음. 그리고 사랑으로
두달 동안 「금관의 예수」라는 강철을 달구어 왔습니다.

이제,

관객 여러분의 차가운 비판으로 담금질을
하려 합니다.

앞으로도

승대극회에 대한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바랍니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 동안 극회 가족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승대극회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단 한번의 공연을 통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려 주겠다는
오만함은 없습니다.

단지 무언가에 미쳐볼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방법중에서
꿈을 먹으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저하시지 말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우리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유명작곡가와 함께
당신도 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메니아
노래연습실
최신곡 간급입수

• 중실대후문 • 중실대정문 TEL. 821 - 0975

경양식 & 호프전문점
빼에로

TEL. 812 - 5768 • 중실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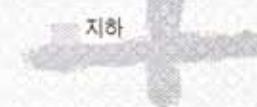
백마당구장

최신의 시설로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자매분식

TEL. 816 - 9835



축
공연

승대극회 47회 정기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배님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승실대학교 승대극회 동문회 일동

— 작가 및 작품에 대하여 —

주지하다시피 김지하는 ‘극작가’라기 보다는 1970년대의 한국정치상황 속에서 가장 박해받았던 ‘정치적 시인’으로서 더 잘알려져 있으며, 김지하의 회곡들은 단순한 예술형태의 차원이 아닌 ‘문화운동으로서의 연극’의 일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금관의 예수〉는

작품 〈금관의 예수〉는 1972년 1월에서 3월까지 한국 팍스로마나(Pax Romana)의 크리스천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전국 카톨릭교구의 지역본부가 있는 도시를 순회한 공연이며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행복한 왕자)에서 연유되는 〈구리 이순신〉을 거쳐 김지하 일개인이 아닌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완성된 작품이다.

1941. 전남목포 출생.

1970. 처녀시집 「황토」 간행

1970~4. 회곡 「나폴레옹 꼬냑」 「구리 이순신」 「금관의 예수」 「진오귀」 「소리굿 아구」 발표.

1975. 아시아·아프리카 작가회의가 주는 'LOTUS상' 수상

1982. 시집 「타는 목마름으로」 대설 「南」 간행

1984~ 「애린」 「이 가문날에 비구름」 「별밭을 우러르며」 간행

우선 “금관의 예수”라는 모순된 전제의 상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보기로 한다. 이 작품 속에서 “금관의 예수”的 상징은 모순된 현실임을 알고 있고, 또 그 모순된 현실이 변화 되어야 함을 느끼면서도, 극중의 인물—신부, 배때기, 순경—이 상징하는 외부적인 현실에 구속되어 행동하지 못하는 대다수 민중의 모습으로 풀이가 되며 극의 마지막, 현실 의식을 통한 문둥이의 “못 견디겠어. 이젠 정말 못 견디겠어.”라는 부르짖음은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극은 대립구조로 진행이 되어져 간다.

거지와 문둥이의 대립, 수녀와 신부와의 대립. 그리고 순경, 배때기, 신부와 문둥이, 수녀, 창녀와의 대립이 그것이다.

대립 구조중 가장 쉽고 단순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만큼 간단한 방법으로 타파될 수 있는 동일계급(즉, 피억압자 내에서의 갈등) 내의 대립은 현실인식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수동적이며 유보적 태세를 취하고 있는 거지와 내재되어 있는 민중의식이 간혹 엿보이며, 개혁의 선봉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문둥이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 진보주의적 지식층이 상징으로 수녀를 내세워 신부와의 대립속에 개혁에 필요한 여러 사업을 진행시키기는 하나 그 개혁이 피억압자 스스로의 자생적 개혁이 아닌 탓에 그 실현에 있어서 불확실성과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대립구조로 들어가면, 억압을 받고 억압을 가하는 입장에서의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인식과 세계관, 지상에서의 모습으로 인한 상이한 계급간의 대립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동일계급내의 갈등처럼 쉽고 간단하게 해소될 수 있는 무게의 것이 아니며, 인간 개개인의 개별적 변화에 앞서 억압과 소외를 불가피하게 만든 사회전반적 근본적 원인의 타파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 작품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주제라 할 수 있는 “금관의 예수”的 상징은 과연 무엇인가? 단지 관객의 스스로 판단에 맡길 뿐이다.



홍석환 (기계 91)

왜.
우리는
가식과
의미없는 웃음을 짓는가
하지만
우리만은 알고 있다.
가식후의 눈빛을
그 눈물을…
그건
한가지 진실을 임태하기 위한 가슴 아픈 허상이라는 사실을
그래.
이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
선배님 · 후배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we songs

Laser Disc System

상도아리랑

TEL. 821-0908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60-2
(충실대 앞 인성빌딩 1층)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

크리드 RESTAURANT

TEL. 812-4360

지하
* 충실대

고풍스러운 분위기 학사주점

옛촌

TEL. 813-6235

지하
충실대 정문

올림픽당구장

최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TEL. 816-1594

충실대

무대감독 권형진(무역 86)	무대미술 정현용(법 87)	무대장차 손진용(산공 87)	조연출 김소희(독문 91)
조명 I 남재우(전자 90)	섭외 임경화(화학 87)	진행 I 홍은영(법 89)	홍보 소장호(전산 89)
음향 관숙경(사사 89)	조명 II 김윤성(정보 92)	기획보 이명성(기계 92)	의상 이경희(산공 89)
		그외 도와주신 분들	
진행 II 이충희(전기 91)	소품 김진범(전산 92)	분장 / 김은경(국문. 88) 사진 / 이정기(사진공부중) 풀물 / 한병재(승민련. 91) 포스터 일러스트 / 조성준	



송근호 (기계 87)

도대체 이 작품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가?
아니 나는, 무엇을 확인하고자 애쓰는가?

바쁜 연습일정에도 학교의 빗장은 굳세게 걸리어 있었다.
'그래, 또 막는구나!' 하는 한숨의 뒤안길에는
분단된 조국의 암울한 현실이 맴돌고 있었다.
이젠 내 학교마저도 감금되어야 하는가?

감금된 것이 '나'만은 아니다.

해방은 나로부터 시작되어 해방된 너를 만나
우리로의 어우러짐으로 발전되어야만 한다.
시작은 지금부터다.

나는 살아있고
살아남은 자의
슬픔에 대한
강한 의문이
있다.

신부·배때기·순경
박원상(독문 88)문동이
양현준(법 90)

지금 내 사고능력은
외출 중입니다.
삐— 소리가 나면
하실 말씀을 해주세요.
삐—

창녀
서윤희(사사 90)거지
홍석환(기계 91)

난 말을 한 것이다.
광언일지언정
소리를 지른 것은
아니었다.

예수
남은정(철학 91)수녀
송숙희(영문 92)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

푸른화원

꽃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TEL. 817-5549

두메골

충실인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연회석완비·한식전문
TEL. 813-3655

선비촌

충실대 동문경영
저렴한 식사
푸짐한 안주
행사도시락
TEL. 822-7269

힐튼명과

맛의 승부
즉석빵전문
TEL. 812-4414

7月 ○日 어떤 하루/첫 Reading

우리말의 어려움을 세삼스레 깨달음. “그때 이들은 바담 바담 바담(?)”
어는人曰：“혀 짧은 게 내탓이여? 우리 엄니 탓이지.”

7月 △日 하루지나 하루/탈출 전수

부시시 일어나 눈꼽떼고 극회실 가보니. 모두 이상한 몸짓을 하며
‘뚱딱기 뚱딱’을 외치고 있었음. 신종 국민체조는 팔로만 하나?

7月 □日 결정의 순간/캐스팅

소문) 누구누구를 문딩이 할라고 머리 깎았데용!
소문이라두요. 소문이라꼬(?) 소문이라두~옹.

7月 ×日 엄청난 날

야구 방망이보단 뾰바이포가 더 좋겠지(?)
이를 악물고 우리 제발 잘해 봅세!

8月 △日/모호한 날

모호한 날임. 이상한 날임. 이해가 안가는 날임. Because 필자 불참한 날이기에.

8月 ○日. 선긋기

본격적인 선긋기 놀이. 아흐! 우리와는 영원한 라이벌 무대여!
요걸 어떻게 잡아 먹지?

8月 초. 어 눈 놀

○○대회 땜에 학교앞에 짭새 집합.
담 밖의 연출. 담 안의 연기자. 아래도 연습이 되는게 마냥 신기.

8月 ×日. 날이다. 날!

메케한 담배연기와 소주잔의 횡렬, 혼잡하군.
Today is 연출 Birthday! 흐흐흐. 연출을 완존히 보냈음.

8月 □日. 또 날이다.

어는 선배 연습싫어 목掴. 선배 曰 “야! 드라큐라한테 나 당했어!”

8月 △日. 꽝이다. 꽝.

여긴 화곡동. 어느 공원. 짭새의 탄압에 야외로 진출. “야유흰지 연습인지. 꽝!”

8月 ○日. 광복절.

비와서 아외는 꽝. 까마기떼의 경호를 받으며 과감히 학교를 탈환. 장하다 숭대 극회!

8月 또 날.

장장 1시간 동안 돼지 잡음. 꽉 꽉!
국장인지 노래방인지.

8月 ×日. 개강날.

학생이 깡패여? 여기저기 잔디밭에서 개강파티를 하는 학우를 보며 선배 曰.
“극회의 개강은 아직 멀었을까. 연습이나 열심히 허라!”

8月 □日. 더운날.

“우와! 짱깨요리다.” 웬걸. 웬종일 극장 청소했음.

9月 ○日. 비오는 어떤 날.

오늘따라 웨이리 극장이 덥지(?)
” 웨이리 무대가 좁지(?)
” 웨이리 몸이 뻣뻣하지(?)
원인모를 9월의 류마티스적 증후군.

9月 △日. 무대 setting

낫·밤을 가리지 않고 뚩·꽝·덩·딱.
얼마 안남은 공연. 자! 힘들 냅시다.

도·서 출·판 땅의 사람들

“손”이 성실하고

“발”이 성실하고

“입”이 성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464-1 경동빌딩 202 호

TEL (02)765-7702, 764-9418, FAX (02)765-7702

땅의 사람들은
우리 정서에 맞는
입거리·먹거리·놀거리·불거리를
찾기위해
항상 기획·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바로 찬우물고장을
찾아가는 길거름입니다.

공연보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921년 6.13	연종회소인국 "칠세월 충나풀에 풍미 말로" "대비극 노예의 탐"			22	1979년 9.29, 10.2	"초분" 오페라作	이정일	황정은
	1923년 7.7, 21	전원극 "우리의 행진" "동백꽃" "십년 후" "기제인간" 염예정년희 주관			23	1980년 11.5, 6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팔라로作	현세범	박양진
	1923년 7.28, 29	"소인연극" 고학생후원회 주관			24	1981년 11.12, 13, 14	"노부인의 방문" F. 위센마트作	이종금	황정은
1	1965년 11.	"폐궁으로 돌아오다" 홍경식作	이반	전진호	25	1981년 11.12, 13, 14	"달맞이 꽃" 김병중作	전석근	황정은
2	1968년 10.28	"Our Town" By Thun Wilder	이태주		26	1982년 5.12, 13	"카리큘라" A. 카뮈作	음대용	지숙
3	1969년 10.10	"희자들" 이오네스코作	이태주		27	1982년 10.7, 8	"페도우 박스" M. 크리스토퍼作	전희식	황정은
4	1969년 10.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민		28	1983년 6.20, 21	"미시시피 해의 결혼" F. 위센마트作	전희식	김병덕
5	1970년 5.15	"황제의 생활" by John Milton Syng	한영재		29	1983년 10.7, 8	"트레비" John Bowen作	이원우	오정열
6	1970년 10.28, 29	"승무의終末" 사무엘 베ckett作	김양기		30	1984년 5.24, 25, 26	"도가니" (The Crucible) A. Miller作	이세근 임세영	오세환
7	1971년	"The Rag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정종화		31	1984년 10.11, 12, 13	"엔진스" John Schenberg作	차세훈	이용섭
8	1971년 5.25, 27, 28, 30 8.1, 2	"간님과 삼화" 윤조경作 "남매복동에 雷에서" 안도 체홍作 "황금단지" (로마극) 투라우티스作 "고도를 기다려라" 사무엘 베ckett作	주정서 한영재 윤근래 차현재		32	1985년 5.9, 10, 11	"인간들" Maxim Gorky作	김성현	이용섭
9	1971년 5.25, 26, 27	"생일파티" H. 펜터作		한영재	33	1985년 11.21, 22, 23	"신부님 유리들의 신부님" 조반니·파렌스키	화승민	옹기별
10	1972년 5.21, 22, 23	"미시시피의 결혼" F. 위센마트作	고봉민		34	1986년 6.4, 5, 6	"에우수스" EGSUS 피터 레퍼作	하설우	화승민
11	1973년 10.25, 26, 27	"왕" H. 펜터作 "기도" (소극장) F. 아리아비작	김득남	차현재	35	1986년 9.11, 12, 13	"교황소" F. 이오네스코作	안상준	옹기별
12	1974년 5.25, 28, 30	"정희의 사랑들" (전 5악) A. 카뮈作	정종화		36	1987년 6.3, 4, 5	"한 여름 밤의 꿈" W. Shakespeare	권행진	오정열
13	1975년 6.3, 10, 12, 13	"싸우터의 산책" "도스도에포스카리는 이름의 개보이!"	김홍수	안홍순	37	1987년 9.10, 11, 12, 13	"오드" A. Cesars	오정열	박경근
14	1975년 10.29, 30, 31	"비단과 밤화병" Max. Frish作	김기열	안홍순	38	1988년 6.2, 3, 4	"세연은 짧게 세연은 길게" 이어령作	이충일	오정열
15	1976년 6.1, 2, 3	"인터뷰" 장 클로드 반 이렐리作	김기남	김득남	39	1988년 10.5, 7, 8	"안내! 뇌기! 끝내기!" Dario Fo作	권태수	송근호
16	1976년 10.25, 27, 28	"敬畏" 장 클로드 반 이렐리作	김병덕		40	1989년 5.25, 26, 27	"농녀" 윤조경作	한승민	안선호
17	1977년 6.15, 16, 17, 18	"EXALUS" 피터 레퍼作	백정식	김병덕	41	1989년 10.10, 17, 18	"대상당의 살인" T.S. Eliot	오정열	이반
18	1977년 10.10, 11, 12, 13	"EXALUS" 피터 레퍼作	장영철	김병덕	42	1990년 5.24, 25, 26	"안타고네" 장 아누이作	권태수	이준석
19	1978년 6.5, 6	"COUNTER POINT" 장 by Osk. Hartman作	장영철	김병덕	43	1990년 8.30, 9.1, 2	"한국 연대기" 홍석영作	한승민	이영민
20	1978년 10.24	"EXALUS" 대학연극 전국제 참가) 피터 레퍼作	한승기	김병덕	44	1991년 5.30, 31, 6.1	"생일파티" H. 펜터作	남재우	전승해
21	1979년 6.14, 19	"한국 200" 김병덕作	정재호	이병국	45	1991년 9.5, 6, 7	"날개" 이상	양현준	권행진
					46	1992년 3.19, 20, 21	"우린 나들을 봄았다" 김상렬作	임경화 정현우	윤은영

신입생 환영공연 연보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	1975년 3.10, 11, 12	"악마와 봄" W. Acton作		김홍수	9	1985년 7.20	"ARIA DA CAPO" E. St. V. Milly作	이영민	화승민
2	1976년 10.28, 30, 31	"로식과 마틴" 이강백作		김득남	10	1986년 3.17, 18, 19	"인형의 집" 벨리 일센作	이정열	김경은 류정신
3	1977년 3.15, 17, 18	"출발" 손대성作	전진호	안홍순	11	1987년 3.12, 13, 14	"나비의 손" J.P. 샤프트로작	백윤현	박경근
4	1979년 3.29, 30	"꽃" 이강백作	한진	정재호	12	1988년 3.24, 25, 26	"불가불가" 이현화作	한승민	황금실
5	1981년 3.30, 31	"ARIA DA CAPO" E. St. V. Milly作	이영민	오세환	13	1989년 3.23, 24, 25	"죽인수녀를 위한 진혼곡" A. Cesars	홍덕태	박경근
6	1982년 3.24, 25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김용학作	최시영	이용섭	14	1990년 3.3, 9.10	"우울증 환자" Bobo Strub	이영민 안상준	박혜숙 백보라
7	1983년 4.16	"플락보데" 피터 레퍼作	전희식	홍여석	15	1990년 3.7, 8, 9	"노르노크" 출스자이퍼作	정현우	
8	1984년 3.8, 9	"개인의 소공간" N. Haked作	차세훈	김인보	16	1992년 5.28, 29, 30	"살먹고 물다시고" 이근삼作	김상렬	양현준